

100. 기습 공격을 받았어? 먼저 나에게 와라.

2015.07.26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으로 주님의 가족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기도드려요.

저는 힘든 아침을 보냈어요. 유혹이 저를 공격했어요. 거절과 버림의 유혹이 갑자기 돌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것은 저를 거의 완전하게 무너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유혹, 저를 너무나도 낙담시킨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기도하러 왔을때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악마들이 너를 그런 식으로 타고 다니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했을 때 너는 그것이 기습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해.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많은 천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해야해.

(클레어) 저는 생각했어요. '오, 주님 제발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휴거 이전에 지구에서 남은 저의 시간동안 저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맏소사. 제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예수님) 왜 안되? 모든 상황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클레어) 주님과 함께라면요? 항상이요.

(예수님) 그래 그럼 가르쳐줘라.

(클레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저는 사적인 생활을 가질 수 없나요? 저의 모든 약점들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예수님) 클레어, 내가 그 질문에 답해야해?

(클레어) 아니요, (한숨을 쉬면서)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아끼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더이상 그들의 친구가 아니게 된 적이 있었나요? 그들이 그냥 떠나가버린 적이 있었나요?

음, 저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쉽게 친구들을 깊게 사귀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질투가 많을 수 있는지를 힘든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었어요. 특히 여러분의 친구들이 현상유지에 전념할때..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을때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의 우정은 뜻을 올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요.

어쨌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유다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였는지에 대한 성경구절을 계속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로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다치게 한 것만큼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 바빠져서 며칠동안 이야기할 수 없었고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음, 오늘 아침에 저는 메시지를 듣기위해 준비하고 있을때 강한 슬픔에 압도되어 거의 주저앉을 뻔하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엄청난 강한 거절의 물결이 저를 덮쳤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죽은 것 같은 슬픔이었어요. 저는 그 느낌에 매우 익숙하였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저의 마음을 맡겼던 누군가에게 거절의 쓰나미를 맞았어요.

여러분이 누가 이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매우 쉽게 빠질 것이고 그 동안 다른 사람도 그들 자신의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악마들이 친한 친구들에게서 갈라놓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악마들이 거짓말이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이제 적어도 그러한 일이 생기면 항상 주님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에스겔 둘다 기도하러 갔고 저희는 '성경의 약속' 책에서 레마(기름부음 받은 말씀)를 주님께 간구하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레마를 구하였을때 둘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저를 배신하였다면 얻었을 말씀이 아니었고 좋은 말씀을 얻었어요. 하지만..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암시가 보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나 저의 등뒤를 찌르거나 하는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였지만 조금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거절의 파도가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성경의 약속' 책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말씀은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위해 그곳에 있을
생각으로 제가 주님 앞에 앉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는 유혹을 받았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클레어) 그리고 감정적으로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저는 제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성경의 약속’ 책으로 저에게 확인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약 한시간 후에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하였고 그 친구는 저희의
우정을 내려놓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었어요.
주님 이제 저의 경험을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너희들이
악마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것을 너희들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거야. 이러한 일에
동의하지 말고 이것이 진실인지 나에게 먼저 와서 분별해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이 어떤식으로든 선택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외부의 확인을
받는 것이야. 너희들은 나에게서 온 기름부는 말씀인 레마가 필요해.

클레어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녀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나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하고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어. 만약 그녀가 미끼를 물고 도망가서 울고, 슬퍼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러한 공격들은 너무 흔하고 나의
백성들은 이 공격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은 그 거짓 정보가
나의 영이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나는 이것을 기습 공격이라고 불러. 너희들은 방금 넘어지고 세계 맞았어. 그 악마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문제의
진실을 알때까지 그들은 너희들을 작동불능으로 만들어.

너희들 중 일부는 성경책을 신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너무나도 ‘성숙’ 하고 ‘지적’ 이야. 그러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만함 때문에 나로부터 전혀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인도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커.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자신이 나에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지만 계속해서 클레어에게 찾아.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태해져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절대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해.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이것이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점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성경구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올바른 성경구절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 저기요? 나는 너희들 안에 살아.

아니, 어린 아이는 단순히 성경책을 집어 들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구절을 선택해주세요!! 클레어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가르칠 수 있었어.

(클레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들을 시험해보는 것을 제쳐두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반드시 항상 영들을 시험해봐야 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들을 시험해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으시다는 것을 분별하셨어요. 이제는 믿고 순종할 때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학 학위는 내려놓고 가짜 짓꼭지를 들고 요청해. 너희들의 어린시절로 더 가까워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조연자, 평화의 왕자가 되고 싶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너무 세상적이야. 지식인들이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학자들이 너희들의 조연자이며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없어.

듣고 믿음으로 행할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몇 가지 멋진 안내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해. 너희들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의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살아야 할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한 대답을 줄 거야.

나의 자녀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조언할 거야. 이해하지 못하여 재갈과 굴레로 반드시 제지해야 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영과 경건한 지혜로 축복해. 만약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 노력해라.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기를 갈망해.